

전주시의회 의원 4명 5분 발언 잇따라

19일 전주시의회 제411회 정례회 제2차 분회의에서 4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송영진(조촌, 여, 혁신동) 의원은 대한방직부지 개발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촉구했다. 송 의원은 "대한방직 부지개발 사업체인 자광의 사업계획 변경 등 일련의 절차에 대해 여러 의구심이 든다"며 "대한방직 부지개발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공공 기여량 대폭 상향, 자광의 이익을 위한 도시계획변경 절차 과정의 문제점, 어불성설 수준의 공공기여 등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천서영(비례대표) 의원은 교육과 조례 제정을 통한 전주시 전세사기 예방 대책 마련을 주장했다.

천 의원은 "주택 매매가 하락과 임대인의 부동산 겹투자 실패로 강릉전세가 늘어나 전세사기가 급증하고 있다"며 "최근 전주시에도 전세사기 피

송영진 의원, 대한방직부지 개발 이익 환수 특위 설치 촉구

천서영 의원, 전주시 전세사기 예방 대책 마련 주장

양영환 의원, 미등록 장애인 발굴 위한 적극 행정지원 필요

정성길 의원, 야간관광 활성화 위한 야간경관 개선 촉구



송영진 의원



천서영 의원



양영환 의원



정성길 의원

해가 잇따라 보도되고 있는 만큼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 양영환 의원은 (동서화, 서서화, 평화1·2동)은 미등록 장애인 발굴을 위

한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국민연금공단 장애등록 탈락 대상자 현황 파악과 현장 방문을 통한 미등록 장애인 발굴, 장애 유형별 데이터 구축을 통해 이들이 행정적 지원과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성길(서산동) 의원은 야간경관 개선을 통한 야간관광 활성화를 제안했다. 정 의원은 "2023년 전주시는 야간관광 특화도시로 선정돼 야간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지만 장소 부족 등으로 야경을 즐기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야간 명소 조성,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지정 등을 위한 중장기적 계획 수립, 야간경관 관련 조례 수립 등을 통한 야간관광을 구축해 관광객 체류시간 증대, 지역관광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2024 DEBUT CONCERT' 개최

전주시립교향악단, 21일 한국소리문화전당 연지홀

전주시립교향악단(지휘자 성기선)은 오는 21일 오후 7시 30분, 한국소리문화전당 연지홀에서 유망신인 데뷔무대인 '2024 DEBUT CONCERT'를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지난 1988년부터 시작된 시립교향악단의 60번째 유망주 발굴시리즈로, 재능있고 우수한 젊은 연주자들에게 무대 경험과 자기표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올해 데뷔 연주회에는 공정한 오디션을 거쳐 최종 선발된 5명의 전북특별자치도 출신의 유망신인들이 협연자로 나서며, 박승유 양주 시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가 객원 지휘자로 나서 신인들과 함께 무대를 꾸밀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이날 공연에는 △윤이상의 '고풍의상' (소프라노 진주은) △베버의 '클라리넷 협주곡 제1번' (차조, 작품73' (클라리넷 이경

우) △모차르트의 '호른 협주곡 4번 E-flat 장조 K.495' (호른 최권순) △에릭 라르센의 '트롬본 협주곡' (트롬본 박도윤) △신동수의 '산아' (바리톤 이대환) 등이 연주될 예정이다.

시는 시립교향악단과 젊은 신인들이 함께 만든 이번 데뷔 무대가 시민들의 음악에 대한 관심을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현영 전주시 예술단운영사업소장은 "이번 협연으로 우리 지역 신인들이 설 수 있는 무대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오는 7월에 개최되는 61번째 유망주 시리즈인 영아티스트 콘서트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공연 입장권은 전석 무료이며, 나무컬처(www.natureculture.com, 1522-6278)에서 예약할 수 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탄력 운영

12월부터 전주선화학교 · 송천초등 스쿨존 일부... 오후 8시~ 다음날 오전 7시까지 50km/h로 상향 예정

전주시 일부 어린이보호구역 내 제한속도가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심야시간대에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전주시는 오는 12월부터 효자동 전주선화학교와 송천동 송천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일부 구간에 대해 어린이 사고 및 차량 통행이 적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의 제한속도를 기존 30km/h에서 50km/h로 상향 조정·운영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이후 경찰청은 지난 2022년 7월부터 어린이 교통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심야시간대 시간제 속도제한을 시범한 후 전국으로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시는 교통안전심의회를 거쳐 선정된 전주선화학교와 송천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 시간제 속도제한 시스템 시범운영을 도입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원활한 교통 통행 환경을 제공기로 했다.

이들 2개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상시 교통량이 많은 왕복 6차로 간선 도로로 경찰서에서 주관하는 교통안전심의회를 거쳐 시범운영 지역으로 결정됐다. 이와 함께 시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7월 일부 개편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노란색 횡단보도 설치 △기·중점 노면표시 도입 △속도제한 노면표시 등도 신규 설치할 예정이다. / 김옥기 기자



전주시는 19일 청년이음전주에서 청년소통공간 '비비' 사업자들과 상반기 운영회의를 가졌다.

전주시, 청년소통공간 '비비' 운영회의 개최

비비 사업자와 운영현황 공유 · 애로사항 등 청취

전주시는 19일 청년이음전주에서 청년소통공간 '비비' 사업자들과 상반기 운영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올해 선정된 비비사업자 4명이 참석한 가운데, 각 공간별 운영현황을 공유하고 애로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로 꾸며졌다.

'비비'는 전주시 18~39세 청년들이 창업과 취업 등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회의와 모임, 정보 공유 및 네트워크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무료로 장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현재 전북대학교 인근 '더키플러'와 '트하이 스타디오펀', 전주대학교 인근 '선셋', 서부신시가지 '스페이스 코워 전북도청점' 등 총 4곳이 운영되

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청년들의 유동 인구가 많은 전북대 인근 '더키플러'가 신규 지정되면서 대학생 등 청년들의 접근이 편리해졌다.

'비비' 이용을 원하는 청년들은 이용 하루 전까지 전주청년 온라인플랫폼인 '청정지대'를 통해 신청하면 되며, 이용 시간은 모임 당 3시간까지 가능하다.

전주시 청년정책과 관계자는 "비비사업자들과 정기적인 소통을 통해 사업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청년들이 소통공간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 앞으로도 청년소통공간 비비의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설공단, 마을버스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버스 운행 업무 원스톱 처리

전주시설공단(이사장 구대식)이 업무 효율 향상을 위한 시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을버스 통합정보시스템 구축했다.

19일 공단에 따르면 마을버스 '바론' 통합정보시스템은 마을버스 운행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배차와 운행일지, 차량 이상 등 마을버스 운행에 필요한 업무뿐 아니라 차량 운행 및 점검 일지, 정비 현황, 부품 관리, 재고 관리, 정비 내역 등 차량 관리 업무를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다. 특히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도입으로 그동안 수기로 작성하던 근무 편성 및 근무 현황, 이용객 현황 등을 프로그램으로 처리할 수 있게 돼 업무 효율성이 크게 높아졌다.

관리자 모드와 함께 사용자 모드를 적용해 운전원들도 손쉽게 스마트폰 앱을 통해 근무 일정을 확인하고 일지를 작성할 수 있게 됐다.

업무 시스템의 효율화로 마을버스를 이용 시민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공단은 기대하고 있다. / 김옥기 기자

전주시, 재개발·재건축 분담금 정확히 매긴다

사업 초기 단계에서 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검증기로

전주시가 각종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등소유자가 분담해야 할 추산액의 정확성을 높이기로 했다.

시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과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사업 초기 단계에서 토지등 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을 검증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과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경우 사업 시행 중 공사비 상승 등 정비사업비용 증가로 인해 분담금이 증가하면서 사업 추진 여부를 두고 각종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검증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중 최초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정비구역부터 적용되며,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계획 입안 제안 시 정비계획에 포함된 분담금 추산액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시는 분담금 추산액 결정 및 검증이 개략적인 감정평가 등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인 만큼 △개략적인 종전·종후자산가액 분석 △수입 및 지출 추산액 분석 △예산비례율·분담금 분석 등을 통해 사업성 검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부동산원에 검증을 의뢰할 계획이다. / 김옥기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기관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익자였다.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김영태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전주매일 캠페인

선화당

관풍각

내아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김영태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